

#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이 재난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오 후\* · 임동균\*\*†

## Analysis of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Accident Cause Characteristics on Disaster Safety Perception

Hoo Oh\* · Dong-Kyun Yim\*\*†

### †Corresponding Author

Dong-Kyun Yim

Tel : +82-43-249-1303

E-mail : yimdk@chungbuk.ac.kr

Received : December 22, 2020

Revised : March 3, 2021

Accepted : April 14, 2021

Copyright©2021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All right reserved.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disaster safety perception (disaster safety importance, accident possibility, personal safety, and regional safety) of local resident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 and accident cause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aster safety importance and accident possibility were higher as residents who had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and were willing to visit the safety experience center in the province. Second, disaster safety importance was higher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lack of response 119 and police. And accident possibility was higher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ird, personal safety and regional safety were higher for men, and especially personal safety was lower as residents with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regional customized disaster safety policies based on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who are policy consumers.

**Key Words** : disaster safety perception,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safety policy, regional poli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1. 서론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재난안전정책 및 제도를 수립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안전 불감증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 준수와 관련 제도 등의 발전을 저해하며,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정책의 획일적인 형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 패러다임 속에서, 안전 불감증 등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재난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당사자이자 정책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지역상황이나 구성원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다르며, 재난안전인식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sup>1)</sup>.

또한 올바른 재난안전인식 함양과 개선은 안전행동형성에 기여하는 습관,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sup>2)</sup>. 물론 기존의 관련 부처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나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정량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판단하는 전문가 인식은 주관적 경험 등에 의해 판단되는 개인인식과 다를 수 있다<sup>3)</sup>. 이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전문가에 의해 마련된 정책 사이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충북대학교 방재공학협동과정 박사과정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전임연구원 (National Crisisontology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청주시민의 재난안전인식 수준을 진단해보고, 올바른 재난안전인식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재난안전인식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재난안전인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체감도 높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재난안전인식의 중요성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sup>1)</sup>. 이때 대화재나 각종 사고, 감염병 등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문제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는 정도를 ‘재난안전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안전인식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며, 일상생활 속 안전과도 직결된다. 그만큼 재난안전인식 수준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는 자연재해나 환경 문제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불감증이나 불안정행동과 같은 미성숙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sup>5)</sup>. 더 나아가 고대유 외는 재난안전인식이 저하되는 환경이 삶의 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따라서 성숙한 재난안전인식은 올바른 안전행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인식이 내재화되고 확산되어감으로써 지역의 ‘안전문화(safety culture)’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주요 요소가 된다<sup>7)</sup>. 특히 지역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난과 이에 대한 법과 제도, 대비시설과 대응조직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주민 개개인의 재난안전인식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재난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매우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주시민들의 재난안전인식 수준을 진단해봄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2 재난안전인식의 영향요인

재난안전인식을 다루는 연구는 대체로 개인특성이거나 집단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때 재난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이 주로 활용되는데, 임동진은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른 안전인식 차이를<sup>1)</sup>, 장미정 외는 성별, 연령과 함께 혼인상태에 따른 위험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sup>3)</sup>. 이 외에도 장지현 외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재난안전인식과 시설안전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sup>8)</sup>, 김보름 외는 가구 점유형태나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재난안전인식과 주관적 웰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sup>9)</sup>. 조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현철 외와 정지연 외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해경험 여부<sup>10)</sup> 및 근무경력에 따른<sup>11)</sup> 재난안전인식 영향을, 하강훈 외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2)</sup>. 배성아 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취업준비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개인 심리특성에 따른 안전인식 영향을 분석하였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역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거주기간을 개인특성에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사고원인에 대한 대응수준이나 관리평가 등도 재난안전인식 수준과 중요한 영향관계를 나타낸다. 사고원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재난안전인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현정 외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법령의 작용, 군·경찰·소방·시민단체·민간기업의 역할 등의 안전관리서비스를<sup>13)</sup>, 최윤정 외는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재난정보 전달체계, 예산투자 등을<sup>14)</sup>, 음성진은 법·제도, 정책지원, 협력체계, 인프라 등을<sup>15)</sup>, 권건주는 지진해일 대피 교육여부와 참여의향 등을<sup>16)</sup>, 정해모 외는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나 무지<sup>17)</sup>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개인이 인식하는 사고원인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인식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인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3 연구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는 대체로 여성, 업종별 근로자(종사자), 대학생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된 인식조사 연구가 중심적이다. 이로 인해 연구대상이 지닌 특성이 결과에 다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을 한정하지 않고 청주시민 전반을 대상으

로 재난안전인식 수준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인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의 재난 안전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도내 안전체험관 방문경험 및 이용의향을 개인특성 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안전체험관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직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안전인식 고취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sup>7)</sup> 분석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체험관이라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재난안전인식 개선여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데에 차별성을 둔다.

### 3. 연구 방법

####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청주시민의 재난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755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53부가 최종 활용되었다.

#### 3.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정·변환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널리 활용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변수는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는 청주시민의 재난안전인식(재난안전중요성, 사고발생가능성, 개인안전성, 지역안전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재난안전중요성), 본인에게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사고발생가능성), 나와 내가 생활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개인안전성, 지역안전성)를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인식특성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응답자의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 재난안전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특성의 터미변수 변환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과 재난안전인식 간 영향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때 분산팽창계수(VIF)를 활용하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Durbin-Watson값을 활용하여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

Table 1. Analysis variable

		Category	Note
Dependent variable	Disaster safety perception	Disaster safety importance	Five-point scale
		Accident possibility	
		Personal safety	
		Regional Safety	
Independent vari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
		Age	
		Child status	
		Period of residence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Accident cause characteristic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Five-point scale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Lack of laws and system			
	False information		

다. p값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으며, β값의 크기를 통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sup>18)</sup>.

## 4.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 4.1.1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

응답자 개인특성 분석결과는 Table 2 및 Fig. 1과 같다. 성별은 여성(58.6%)이, 연령은 60세 미만(76.6%)이 많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51.4%)가 그렇지 않은 응

Table 2. Analysis resul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12	41.4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Yes	542	72.0
	Female	441	58.6		No	211	28.0
Age	Under 60	577	76.6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Yes	118	15.7
	Over 60	176	23.4		No	635	84.3
Child status	Yes	387	51.4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Yes	484	64.3
	No	366	48.6		No	269	35.7
Period of residence	Under 10	554	73.6	N=753			
	Over 10	199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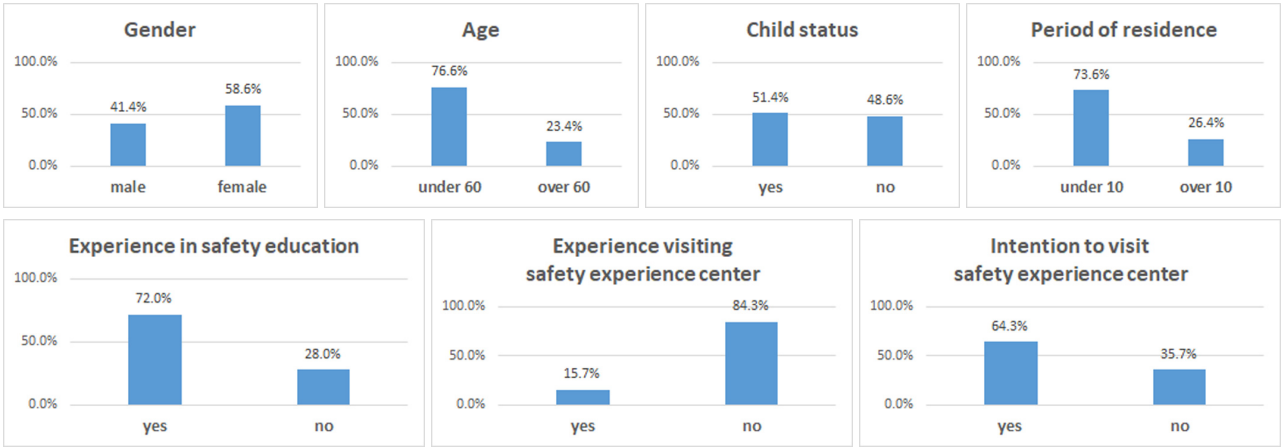


Fig. 1. Analysis resul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답자보다 많고, 거주기간은 10년 미만(73.6%)이 많게 나타났다.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72.0%)가 더 많은 반면, 도내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응답자(15.7%)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집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전체험관이 있는 경우 이용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64.3%)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원인 특성 분석결과는 Table 3 및 Fig. 2와 같으며,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3점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3.45점), 교육·훈련 미흡(3.28점), 재난안전 법·제도의 미비(3.23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큰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results of accident cause characteristic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3.45	0.81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3.21	0.82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3.28	0.88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3.07	0.87
Lack of laws and system	3.23	0.90
False information	3.20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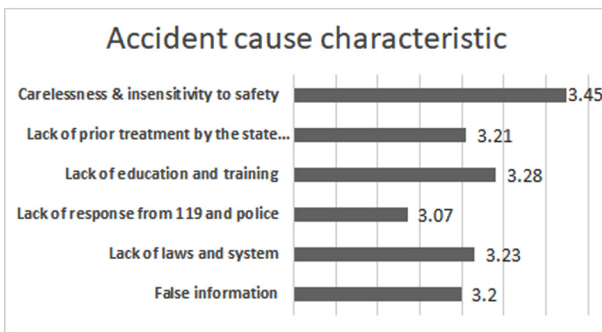


Fig. 2. Analysis results of accident cause characteristic.

이를 종합해보면, 청주시민들은 비교적 안전교육 경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교육과 훈련의 미흡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2 재난안전인식 수준

응답자 재난안전인식 수준은 Table 4 및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재난안전중요성은 5점 만점 중 4.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발생가능성 역시 3.9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주시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Analysis results of disaster safety perception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Disaster safety importance	4.48	0.74
Accident possibility	3.91	0.79
Personal safety	2.77	0.93
Regional Safety	2.97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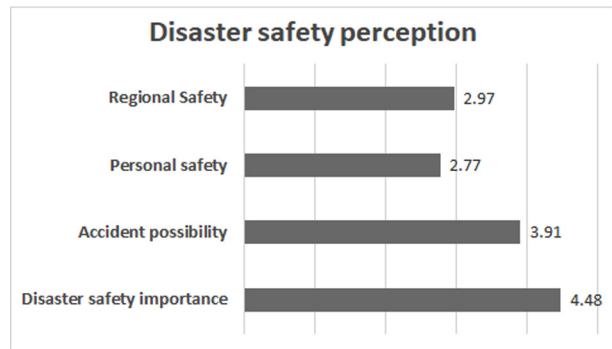


Fig. 3. Analysis results of disaster safety perception.

반면, 개인안전성은 2.77점, 지역안전성은 2.97점으로 3점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안전이 중요하고 발생가능성도 많다고 느끼는 데에 비해 개인 스스로, 그리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4.2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이 재난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4.2.1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에 따른 재난안전중요성**

재난안전중요성과의 영향관계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특성의 경우 안전교육 경험( $t=7.276, p=.000$ ), 도내 안전체험관 이용의향( $t=2.824, p=.005$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고원인 특성의 경우에는 119와 경찰의 대응 미흡( $t=2.681, p=.007$ ), 교육·훈련 미흡( $t=2.449, p=.015$ ),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t=2.267, p=.024$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고 도내 안전체험관 이용의향이 높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119와 경찰의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훈련은 미흡하고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재난안전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disaster safety importance)

Category	B	$\beta$	t	Sig	VIF
Gender	-.034	-.023	-.656	.512	1.041
Age	-.110	-.064	-1.634	.103	1.340
Child status	.039	.027	.672	.502	1.142
Period of residence	-.022	-.013	-.367	.713	1.075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416	.258	7.276	.000	1.120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072	-.036	-1.001	.317	1.128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155	.102	2.824	.005	1.309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078	.087	2.267	.024	1.251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057	.064	1.363	.173	1.894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096	.116	2.449	.015	1.929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106	-.126	-2.681	.007	1.899
Lack of laws and system	-.005	-.006	-.113	.910	2.260
False information	.025	.031	.692	.489	1.753
$R^2=.145, \text{Modified } R^2=.130, \text{Durbin-Watson}=1.705, F=9.571, p=.000$					

**4.2.2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가능성**

사고발생 가능성과의 영향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인특성의 경우 안전교육 경험( $t=3.327, p=.001$ ), 도내 안전체험관 이용의향( $t=3.049, p=.002$ )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 특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전대처 미흡( $t=2.280, p=.023$ ),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 $t=2.759, p=.006$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고 도내 안전체험관 이용의향도 높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사전대처가 미흡하고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사고발생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accident possibility)

Category	B	$\beta$	t	Sig	VIF
Gender	-.063	-.040	-1.090	.276	1.041
Age	.094	.050	1.234	.218	1.309
Child status	-.042	-.027	-.652	.515	1.339
Period of residence	.003	.002	.041	.967	1.140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214	.123	3.327	.001	1.076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029	-.013	-.352	.725	1.120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188	.115	3.049	.002	1.130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107	.110	2.759	.006	1.250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108	.112	2.280	.023	1.892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019	-.021	-.423	.672	1.927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012	-.013	-.267	.790	1.897
Lack of laws and system	.041	.047	.882	.378	2.258
False information	-.023	-.027	-.564	.573	1.752
$R^2=.074, \text{Modified } R^2=.057, \text{Durbin-Watson}=1.682, F=4.490, p=.000$					

**4.2.3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에 따른 개인안전성**

개인안전성과의 영향관계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개인특성 중 성별( $t=5.064, p=.000$ )과 자녀여부( $t=-2.658, p=.008$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원인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개인안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7.**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personal safety)

Category	B	$\beta$	t	Sig	VIF
Gender	.315	.182	5.064	.000	1.040
Age	.126	.062	1.529	.127	1.313
Child status	-.185	-.108	-2.658	.008	1.339
Period of residence	.129	.067	1.771	.077	1.141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125	.066	1.807	.071	1.074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057	.024	.648	.517	1.122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005	.003	.079	.937	1.127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043	-.041	-1.034	.301	1.252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062	-.059	-1.210	.226	1.891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052	-.053	-1.094	.274	1.925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015	.015	.307	.759	1.894
Lack of laws and system	-.094	-.099	-1.865	.063	2.256
False information	.002	.002	.052	.958	1.749
$R^2=.094, \text{Modified } R^2=.078, \text{Durbin-Watson}=1.783, F=5.843, p=.000$					

4.2.4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에 따른 지역안전성

지역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개인특성의 경우 성별(t=4.330, p=.000)만이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원인 특성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법·제도의 미비(t=-2.407, p=.016), 교육·훈련 미흡(t=-2.249, p=.025), 국가와 지자체의 사전대처 미흡(t=-1.878, p=.037)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일수록 지역안전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으며, 재난안전 법·제도와 교육·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전대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지역안전성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8.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regional safety)

Category	B	$\beta$	t	Sig	VIF
Gender	.292	.155	4.330	.000	1.041
Age	.134	.060	1.499	.134	1.311
Child status	-.092	-.049	-1.210	.227	1.346
Period of residence	.046	.022	.579	.563	1.140
Experience in safety education	-.075	-.036	-1.004	.316	1.076
Experience visiting safety experience center	.166	.065	1.747	.081	1.123
Intention to visit safety experience center	-.132	-.068	-1.830	.068	1.130
Carelessness & insensitivity to safety	-.005	-.005	-.116	.907	1.249
Lack of prior treatmen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104	-.090	-1.878	.037	1.887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116	-.109	-2.249	.025	1.926
Lack of response from 119 and police	.108	.101	2.092	.061	1.898
Lack of laws and system	-.131	-.126	-2.407	.016	2.252
False information	-.036	-.034	-.742	.459	1.745

R<sup>2</sup>= .106, Modified R<sup>2</sup>=.090, Durbin-Watson=2.000, F=6.660, p=.0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이 재난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안전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사고원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재난안전인식(재난안전중요성, 사고발생가능성, 개인안전성, 지역안전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중요성과 사고발생가능성은 안전교육 경험이 있고, 도내 안전체험관 이용의향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재난안전교육 참여와 도내 안전체험관 방문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미성숙한 재난

안전인식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와 달리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재난안전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시민들이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그만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19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할수록 재난안전중요성이 낮아지고, 사고발생가능성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전대처가 미흡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시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 대응기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대응성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개인 및 지역안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 연구에서 여성을 재난안전약자로 보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인식 향상방안이 정책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때 개인안전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역안전성은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재난안전인식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인식수준 진단 및 영향요인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응답자 집단이 청주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와의 실질적인 인식차이 유무를 밝혀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반주민과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집단을 나누어 인식 차이를 규명해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가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 인식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ork (or document)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n Disaster Management. 이 교재는(또는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References

- 1) D. J. Lim, "The Cognitive Level on Social Safe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South Korea : Focused on Local Citizens and Civil Servan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20, No. 1, pp. 89-114, 2016.
- 2) S. S. Park and C. H. Le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fety Consciousness upon Risk Recognition of Accidental Typ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6, pp. 152-160, 2010.
- 3) M. J. Jang, J. H. Kim, E. J. Lee and K. S. Kim, "Factors Contributing to Seoul Citizens'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Policy Need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5, No. 3, pp. 1-12, 2019.
- 4) D. K. Lee and Y. K. Min, "After Fery Sewol Disaster, How does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Affect Government Trust? : Centers on the Omnibus Survey of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Conducted", *Crisisonomy*, Vol. 11, No. 3, pp. 19-38, 2015.
- 5) S. A. Bae, S. R. Noh and S. Y. Ok,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Safety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1, No. 3, pp. 102-108, 2016.
- 6) D. Y. Ko and D. Y. Kim, "The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Percep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Level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Region and Education", *GRI REVIEW*, Vol. 19, No. 3, pp. 393-417, 2017.
- 7) S. H. Yoon, "Safety Experience Education Leads to a Safe Social Culture", *Disaster Prevention and Insurance*, Vol. 117, pp. 14-19, 2007.
- 8) J. H. Jang, Y. J. Song, N. H. Kim and W. I. Lee, "Effects of Disaster Safety Awareness and Safety Culture on the Safet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8, No. 5, pp. 203-210, 2018.
- 9) B. R. Kim, H. M. Kwon, M. S. Kim and Y. H. Lee, "The Effects of Disaster Safety Percept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in Busa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4, pp. 14-162, 2020.
- 10) H. C. Lee, S. K. Yeo and S. S. Go, "A Study on the Improving Safety Management by analyzing Safety Consciousness of Construction Labor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 9, No. 3, pp. 51-58, 2009.
- 11) J. Y. Jung and H. J. Yu, "A Study for Construction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Education Activation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8, No. 1, pp. 47-51, 2013.
- 12) K. H. Ha, S. H. So and K. S. Lee, "Investigation of Effect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Job Stress on Personal, Job and Health Care Characteristic of Firefigh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2, No. 4, pp. 79-88, 2017.
- 13) H. J. Yoo and J. E. Lee, "Consumers' Safety Perception and Evaluating the Safety Management Service: Comparative Analysis among China, Japan, USA, and Korea", *Crisisonomy*, Vol. 2, No.2, pp. 33-51, 2010.
- 14) Y. J. Choi, W. H. Koo and M. H. Baek,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and Comparison for Disaster Safe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3, No. 3, pp. 388-397, 2017.
- 15) S. J. Eum, "A Study of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Disaster Safety Recognition of the Vulnerable Class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Rural Residents", *Konkuk University*, 2020.
- 16) G. J. Kwo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sunami Disaster Response Education and Training: Focusing on Samcheok Citizens", *Crisisonomy*, 2011.
- 17) H. M. Jeong, J. H. Choi and W. H. Ho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an Fire Safety Education Model through a Survey of the Safety Consciousness of Citize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6, No. 4, pp. 65-75, 2010.
- 18) J. J. 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Necessary for Thesis Writing)", *21cbook*. 2008.